

화산면민 체육대회 광복 후 60년 넘게 이어져

향우들 화산초에 모여
기념식 갖고 축구대회



해남군 화산면 주민들은 1946년부터 66년째 매년 광복절에 축구대회를 가지며
면민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체육대회 모습.

해마다 광복절이면 해남군 화산면 주민들은 바쁜 일손을 접고 한자리에 모인다. 1945년 해방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광복기념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썸뚝더위 속에서도 매년 8월 15일 아침 주민들은 화산초등학교에 모여 면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체육대회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올해도 해남군 화산면은 1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5~16일 이틀간 면민과 향우 1000여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기념 화산면민의 날 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화산면민의 광복기념 체육대회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면 체육회를 중심으로 마을별 축구대회를 개최하던 행사에서 유래했다. 광복의 기쁨이 채 가지지 않았던 시기, 8·15때만 함께 모여 기념식을 갖고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대회를 개최해 오게 된 것.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과 큰 가뭄이 들었던 1968년을 제외하고는 거른 적이 없는 전통의 체육대회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42개 마을에서 50여개의 축구팀이 출전할 정도로 면민들의 열기가 높았다.

66년간 한여름 체육대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민선자치가 시작되던 시기에는 관내 모든 '면민의 날'을 4월 1일로 통일시키는 안이 통과되자 면민과 향우들의 반대 끝에 주민 설문조사까지 실시

하며 원래의 날짜를 지켜낸 사연도 있다. 광복절 행사에 대한 면민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면민 개인에서부터 향우들까지 심심일만 행사비용을 모으고, 행사 준비에서부터 진행, 마을 잔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민들이 주도해 치러내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경관 목포시 관광기획과장은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바다축제 무한변신하기 위해 앞으로도 향구도시 목포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황산면, 옥매산에 박힌 '일제 쇠말뚝' 제거 행사

수장된 옥매산 광부들
120여 명 추도 행사도



일제 강점기에 해남 옥매산 정상에 박힌 쇠말뚝이 오는 15일 제거된다. 쇠말뚝을 살펴보고 있는 해남 옥매산 쇠말뚝뽑기 추진위원회 위원들

해남군 황산면과 문내면 사이에 위치한 옥매산(173.9m) 정상에 박힌 쇠말뚝이 제거된다. 해남 옥매산 쇠말뚝뽑기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순택·이하 추진위원회)는 "광복절인 15일 오전 10시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을 제거해 심리적 평안을 기원하고, 1945년 8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수장된 광부들을 추도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식전 행사로 산신제·살풀이·기뽀이에 이어 본 행사로 고유제, 쇠말뚝 뽑기와 복원의례, 내력비 세우기가 진행되고 식후 행사로 평안기원제, 축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황산면 각종 사회단체와 면사무소는 민·관 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구전으로 내려오던 옥매산 일제 쇠말뚝을 북쪽 정상 암반에서 직접 확인했다. 쇠말뚝은 특수한 합금으로 제작돼 전

혀 녹이 쉽지 않았다. 특히 쇠말뚝보다 큰 구멍을 깊게 파고 팔각기둥 모양의 쇠말뚝을 박은 후 석회를 부어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시멘트로 덮어 밀봉한 흔적까지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일제 쇠말뚝과 흡사하다. 옥매산은 풍수지리학상 진도의 해양관과

화원반도의 등돌매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해당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옥매산 광부들은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 방공호 등을 파는 일에 동원됐다. 해방을 맞아 귀향하던 중 선박화재로 청산도 인근에서 120여 명이 수장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해양문화축제 체험·참여형 축제로

81만명 찾아 대성황

'2012 목포해양문화축제'가 한여름 무더위를 온몸으로 즐기는 체험·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목포시는 "빛의 향연, 낭만의 바다!"를 주제로 지난 3~7일 평화광장과 삼학도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81만명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35도를 웃도는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 여수엑스포, 런던올림픽 개최 등 악재에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처음 선보인 '목포 밤바다 야경투어는 선상에서 색소폰, 통기타 라이브 연주를 들으며 아름다운 목포항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야경 투어는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축제는 참여형·체험형 축제를 대폭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는 동적인 축제의 변신을 꾀했다.

특히 정형화된 개막식 행사를 없애고 시민 및 관광객이 어우러진 개막 퍼레이드인 '남도 갯길 길놀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점, 해군군함·해경

경비정·요트 등 33척 선박을 활용한 해상 퍼레이드, 음악+바다분수+첨단 IT기법의 미디어 아트쇼인 '바다분수 불꽃쇼', 워터 스크린을 이용 축제환영 메시지와 목포 홍보 동영상 송출 등을 관람객들의 열렬한 탄성과 환호를 받았다.

박경관 목포시 관광기획과장은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바다축제 무한변신하기 위해 앞으로도 향구도시 목포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건강 장수마을 프로그램으로 신안 노인들 무더위 이겨낸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안지역 노인들이 신안군의 고령화 사업 일환인 '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에 따라 무더위를 이기고 있다.

신안군 이해면 북쪽 2구 마을은 올해 '농촌 건강장수 마을'로 선정된 곳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주 2회씩 과학적인 건강프로그램에

의해 건강교육과 함께 화분 가꾸기·부채 만들기·수지침·웃음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1인 1화분 가꾸기'는 농촌 노인들에게 차매에방과 심신안정을 줄 수 있는 장수의 건강 비결점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안군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사업 일환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쪽2구 마을은 앞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마을환경 가꾸기와 함께 농촌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소득활동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된다.

이해면 북쪽2구 마을은 현재 80농가 181명이 살고 있으며, 거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인구의 50%(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새만금환경청 개청

전주환경청 조직 확대
이름 바꿔달고 새출발

새만금유역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유영숙 환경부장관, 조남조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김완주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개청했다.

새만금환경청은 기존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을 확대·개편,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했다.

실무인력도 62명에서 69명으로 늘었고 청장 직급은 4급에서 고위 1급으로 상향조정됐다.

환경감시 기능이 신설돼 새만금유역과 도내 상수원, 환경오염·환경법령을 반복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 환경오염행위를 특별지도·점검한다.

박미자 청장은 "물과 사람이 상생하도록 새만금유역 환경관리 강화는 물론 주민공감형 생활환경 조성과 국토의 생태건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군산해경, 섬주민 대상

군산해양경찰서는 도서벽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해양, 수산 종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무료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분쟁 등 생활 관련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할 예정이다.

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지원이 필요한 주민과 수산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과 협회도 계속해서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순창군이 농작물 전반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 박멸을 위해 무인 농업용 헬기과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2차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남원 체험마을에서 여름추억 만드세요

10개 마을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 등 10개 농촌체험마을에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지역에는 운봉읍 동편제마을·운봉읍 춘향 허브마을·주천면 반달곰 산채마을·수지면 말고리마을·덕과면 난두리마을·보절면 추어마을·산동면 대상 하늘별 마을·인월면 달오름마을·아영면 봉대마을·산내면 매동마을·산내면 장항 원천마을 등 10개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감자캐기와 같은

계절별 농사체험은 물론 허브비누 만들기·미꾸라지 잡기·천문관측·떡만들기·메주만들기 등 민속·전통·농사·공예·건강과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산동면 대상 하늘별마을(대운고호현) 천문관측 체험은 꼭 한번 가볼만한 곳이다.

하늘별 마을에는 지난 2006년 준공한 민행산 천문체관(관장 고호현)이 있다. 이곳에는 천체망원경 16대와 육상 전시용 대규모 천체망원경 3대 등 64종의 천문관측기자를 갖추고 별나라 탐험을 하고 있다.

■남원 농촌 체험마을 현황

마을명(체험명)	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동편제마을(전초마을)	계절별 농사체험, 전통 테마체험, 건강체험	동편제마을.kr
춘향허브마을	허브비누, 세정제, 허브초코렛 만들기 등	chunhyang.go2vil.org
반달곰산채마을(고촌마을)	농사체험, 계곡체험, 민속문화 체험	cafe.daum.net/Gogiri-gochon
말고리마을(미륵마을)	건강생활체험(참숯항토찜질방, 계절별농사)	malgori.net
난두리마을(덕동마을)	배춧축제, 계절별 농사체험	nandury.com
추어마을	미꾸라지잡기, 각종공예 및 농사체험	chueo.go2vil.org
산동 대상 하늘별마을	천문 관측 체험	skystarville.or.kr
달오름마을	떡 만들기, 각종 공예체험, 농사체험 등	dalorum.go2vil.org
봉대마을	감자캐기 등 계절별 농사체험	dalorum.go2vil.org
매동마을	새끼고기 등 민속체험	maedong.org
산내 장항 원천마을	사과즙, 두부, 메주 만들기 체험	jisanchon.com

하늘별마을은 뜻있는 남원시 교사들과 주민들이 모여 캠프스테이로 발달한 체험마을로, 언제든지 지도해 줄 전문관측사 선생님이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천문관측기 조작과 관측, 주변 식성 탐구활동, 민행산 등반을 통한 극기훈련, 계곡의 편마암 등 지질탐사활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천문과학과 한국역사를 결합한 고(古)천문학을 가르침으로서 체험

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전국 과학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추제를 마한 천문체관관에 서 실시해 하늘의 천문과 자연생태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밖 체험학교'로 유명하다.

이용 및 숙박료는 당일체험 3만원, 1박2일은 5만원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 신

전주시, 한지제조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국산 한지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10주간 제3기 한지제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임실지역 자활센터 자활영농반 13명을 대상으로 닥나무 식재 작업에서부터 땀아 제거 작업, 토양 보강 작업, 채취

작업, 닥무지 작업, 박피공정, 흑피 제거작업, 건조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한지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063-281-1531)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멧돼지 기동 포획단' 10월까지 운영

군산시는 야생 멧돼지의 도상 출현에 따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멧돼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멧돼지 기동 포획단'은 관내 모범업사 6명으로 운영되며, 멧돼지 출현 및 피해 신고 즉시 활

동해 구제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를 발견하면 경찰서(112), 소방서(119), 군산시 환경위생과(주간 063-450-4331, 야간 063-450-4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2012년산 보리·밀 보급중 신청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2012년산 정부 맥류 보급 235t을 확보하고 오는 2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보급종 품종은 식용으로 ▲한찰쌀 보리 ▲청보리용 영양보리 ▲유호보리 ▲국산밀인 금강밀 등 4품종으로

우리지역에 알맞도록 육성되어 품질이 우수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처음 공급되는 '유호보리'는 소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까락이 없는 품종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순창 가축분뇨 배출·비산방지 사업장 점검

순창은 8월 한달간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비산방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출시키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시비·살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비산방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방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